KLI PANEL Brief

발행인 허재준 | **편집인** 이경희 | **발행일** 2023년 11월 10일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패널브리프 제25호(2023-04)**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정현상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hsjung@kli.re.kr)

KLI PANEL Brief

- 제2~25차(1999년~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과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보았음.
-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32.3%로 조사되었으며, 노인 1인가구는 10.1%, 노인 부부가구는 11.0%를 기록함.
  - 노인 1인가구 성별은 대부분 여성 중심이었으나 최근 남성 노인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 기준 28.2%까지 증가했는데, 최근 특징으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별거'로 인해 남성 노인 1인가구가 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노인가구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은 전체가구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21년 76.2% 수준으로 증가했음.
  - 다만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여전히 80% 이상이 전체가구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 1인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사회보험 수혜금과 이전소득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기초연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그리고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됨.
  - 최근 노인취업자 규모 증가는 대체로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월평균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의 빈곤완화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배경 및 목적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일컫는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말에서 2025년 즈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2030년 25.5%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 2040년에는 1/3 이상(34.4%)의 인구가 노인세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됨.

-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 노인가구의 인적 특성과 소득 및 노동시장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2. 분석자료 및 표본

•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주를 기준으로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로 구분함.[1)]
  - 노인 1인가구 : 혼자 사는 노인가구
  - 노인 부부가구 : 부부로 구성된 노인가구

• 분석에는 제2~25차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함.

〈표 1〉 노인가구 유형별 표본수

(단위 : 가구)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2
노인 1인	145	172	196	256	298	356	407	454	514	564	615	702
노인부부	195	230	274	305	342	390	447	525	568	630	662	718
노인전체	574	643	764	905	1,039	1,150	1,239	1,396	1,532	1,661	1,756	1,965
전체가구	4,507	4,246	4,592	4,849	5,069	5,306	5,404	5,501	5,624	5,734	5,777	5,807

주 : 각 연도 98표본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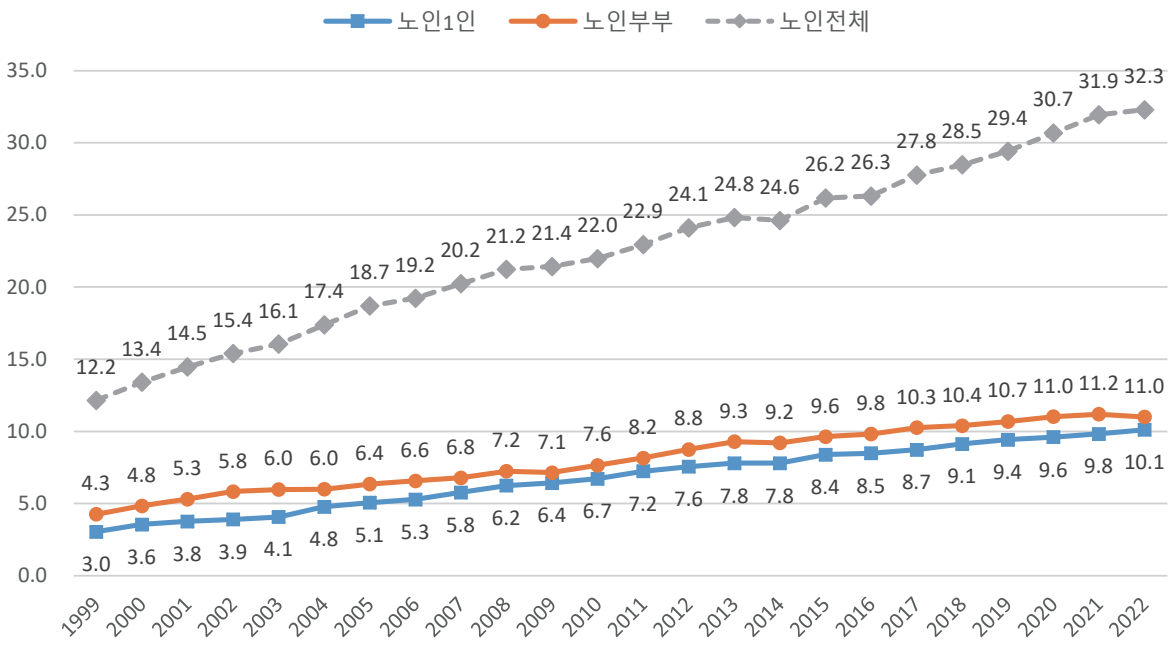
3. 노인가구 유형별 특성 변화

•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999년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각각 전체가구 대비 5% 미만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0%를 상회함.
  - 노인 1인가구는 1999년 대비 2022년 7.1%p(3.0% → 10.1%), 노인 부부가구는 동기간 6.7%p(4.3% → 11.0%) 증가했고, 전체 노인가구(12.2% → 32.3%)는 2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1) 가구주가 노인이고 자녀 혹은 손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가구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특성에 따라 일관된 특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인 1인가구와 부부가구만으로 논의를 제한함.

[그림 1] 전체가구 대비 노인가구 유형별 비중 변화

(단위 : %)



주 : 각 연도 98표본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 노인가구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 노인 1인가구의 성별은 여성 비중이 2002년 88.7%에서 2022년 71.8%로 16.9%p 하락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 노인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2년 남성 노인이 1인가구가 된 사유는 81.1%가 '배우자와 사별' 때문이었으나 2022년 동사유는 41.2%까지 하락했고 '별거 혹은 이혼' 사유는 동기간 9.9%에서 50.1%로 증가, 미혼은 3.3%에서 8.2%로 증가했음.
  - 한편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주 성별은 조사기간 동안 대체로 남성인 것으로 조사됨.
  - 노인 가구주의 경우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노인 1인가구(2022년 78.2세)와 노인 부부가구(2022년 74.3세) 간 가구주 평균연령 차이도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2002년 노인 1인가구의 무학 비중은 65.7%로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 43.1%p가량 더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 차이는 줄고 있음.[2] 최근 들어 고졸 이상 고학력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부부가구는 2022년 기준 52.8%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거주지역은 점차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 대비 2022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는 10.8%p 증가한 45.2%로 나타난 반면, 광역시와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각각 2.4%p,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및 전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80% 이상이 자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남. 주택종류를 보면 대체로 단독주택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노인 1인가구의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2022년 기준으로 86%가 여성인 경우로 나타남.

〈표 2〉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특성 변화

(단위 : %, 세)

		노인 1인가구			노인 부부가구			전체 노인가구		
		2002	2012	2022	2002	2012	2022	2002	2012	2022
성별	남성	11.3	20.8	28.2	98.9	98.2	99.5	67.8	65.5	70.0
	여성	88.7	79.2	71.8	1.1	1.9	0.5	32.2	34.5	30.0
평균연령		73.4	75.5	78.2	71.8	73.0	74.3	71.6	73.5	74.7
교육수준	무학	65.7	49.6	33.5	22.6	8.7	10.8	35.1	23.4	17.0
	초졸	21.9	27.2	30.0	30.8	23.6	18.3	29.9	28.2	22.8
	중졸	4.7	8.3	11.8	11.6	17.2	18.2	10.0	14.2	15.7
	고졸	5.3	10.1	15.9	16.5	27.4	27.1	14.5	20.7	27.1
	대졸 이상	2.5	4.8	8.8	18.6	23.2	25.7	10.6	13.5	17.4
거주지역	수도권	25.5	34.4	32.7	38.0	39.9	46.6	34.4	42.8	45.2
	광역시	24.0	25.9	28.0	25.9	28.2	26.8	28.8	27.1	26.5
	시도	50.6	39.7	39.2	36.2	31.9	26.5	36.7	30.1	28.3
입주형태	자가	65.5	55.7	54.2	81.1	81.7	81.7	75.9	73.7	67.6
	전세	16.2	14.4	11.5	13.0	8.3	9.0	13.7	10.0	14.9
	월세	6.9	15.1	22.9	3.9	7.3	5.8	4.7	9.4	12.3
	기타	11.4	14.8	11.5	2.0	2.7	3.5	5.7	6.9	5.3
주택종류	단독주택	60.2	50.7	37.4	60.9	48.2	29.7	60.7	43.3	28.8
	아파트	23.6	28.6	37.2	24.3	36.7	51.2	21.0	34.3	44.5
	연립주택	2.5	6.2	9.2	5.2	5.3	6.9	5.4	8.1	11.6
	다세대	6.1	9.5	10.5	6.5	5.5	8.5	7.7	9.7	9.5
	기타	7.8	5.0	5.6	3.2	4.4	3.8	5.2	4.6	5.5

주 : 각 연도 98표본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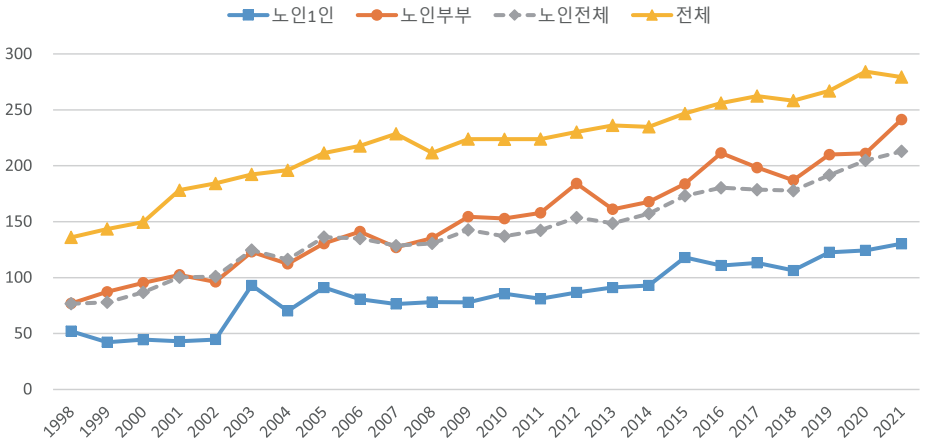
4.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소득

- [그림 2] 노인가구 유형별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3]을 살펴보면,
  -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이 1998년 52만 원으로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대비 38.4%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21년 기준 130만 원(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대비 46.6%, 8.3%p 상승)으로 증가함.
  - 반면 노인 부부가구는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대비 비중이 동기간 29.9%p 증가하여 노인 1인가구에 비해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기준으로 노인 1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은 130만 원으로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 낮고 노인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서도 83만 원 낮게 나타남.

3)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유형별 비교를 위하여 가구총소득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기준으로 가구실질총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을 구함.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소득은 작년 한 해 소득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을 12로 나누어 연간 월평균 소득으로 제시함.

[그림 2] 노인가구 유형별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변화

(단위 : 만 원)



주 : 1) 각 연도 98표본 가구가중치 적용.
2) 가구총소득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기준으로 실질소득=(명목소득/당해연도 소비자 물가지수)×100으로 산출.
3) 가구실질균등화총소득=가구실질총소득/가구원 수의 제곱근.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 [그림 3] 노인가구 총소득을 구성하는 세부소득을 살펴보면,

- 전체 노인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은 각 16.1%, 부동산소득 12.7%, 기타소득 3.0%, 금융소득 1.1% 순으로 나타남. 이를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수급과 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 부부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2001년 28.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6%p 상승한 34.9%, 노인 1인 가구는 동기간 3.6%p 하락한 21.6%로 전체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 혹은 손자녀 등과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2021년 기준 70.1%)임.
- 노인 1인가구의 경우 2021년 기준 사회보험과 이전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6%, 45.2%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전소득 중에서도 기타정부보조금(17.1%, 이 중 기초연금이 14.6%)과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21.3%)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보험의 경우 노인 1인가구 중 노령연금의 수급비중이 2001년 2.5%에 불과했으나 2021년 기준 28.2%까지 증가했고 유족연금의 경우 동기간 0.6%에서 10.4%까지 증가함. 노인 1인가구는 대체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림 4]에서 이전소득의 세부항목인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의 총소득 대비 비중은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기타 정부보조금, 특히 기초연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 1인가구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4)]

4)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23차 조사(2019년 가구소득)부터 기타 정부보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다시 한 번 설문하고 있는데 제23~25차까지 노인 1인가구 기타정부보조금의 80% 이상이 기초연금인 것으로 조사되어 2014년 이후 기타정부보조금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일 것으로 추측됨.

[그림 3]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세부항목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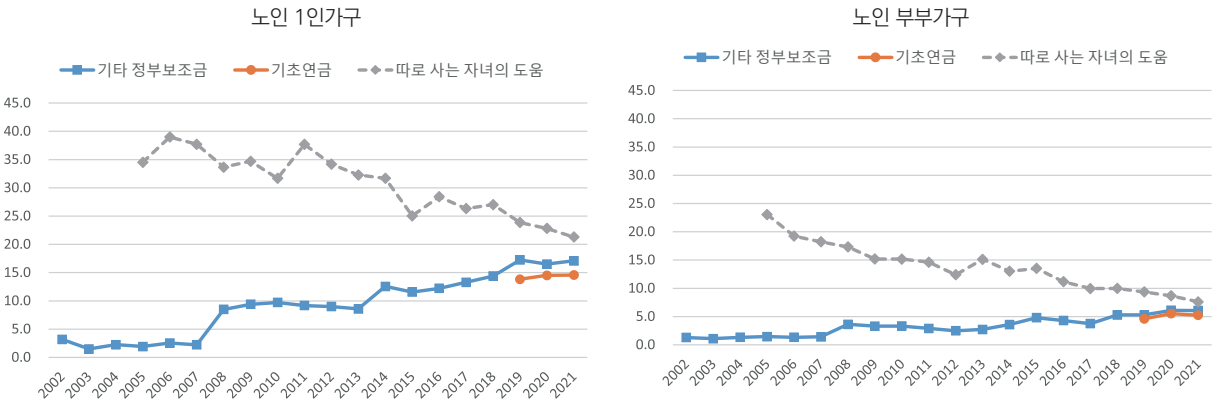
(단위 : %)

주 : 각 연도 98표본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4] 노인가구 유형별 총소득 대비 기타소득 세부항목별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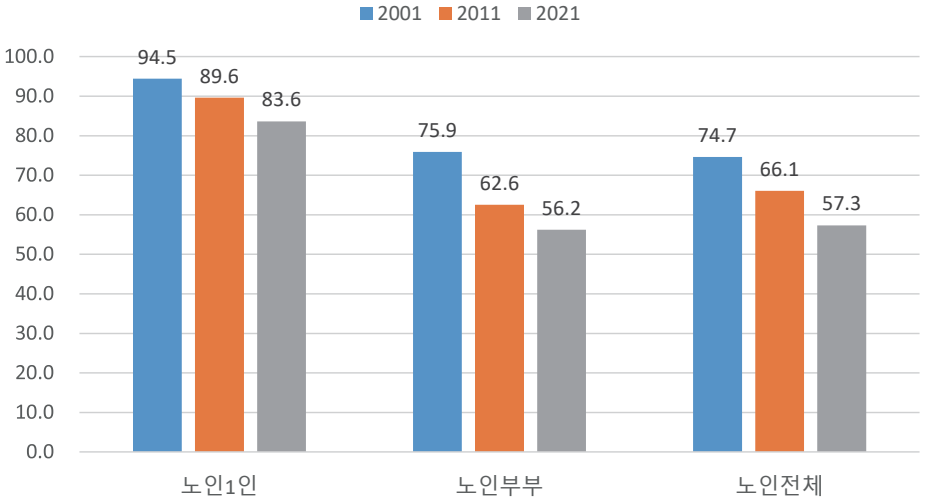
주 : 각 연도 98표본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 [그림 5]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하위 40%(이하 소득하위 40%)에 포함되는 노인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 노인 1인가구는 2001년 94.5%에서 2021년 83.6%로 10.8%p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노인 1인가구는 소득하위 4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하위 40% 비중 추이

(단위 : %)



주 : 각 연도 98표본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 노인 부부가구는 2001년 대비 2021년 소득하위 40% 비중이 19.7%p 감소한 56.2%로 나타났고 전체 노인가구는 동기간 74.7%에서 17.3%p 감소한 57.3%로 조사됨.

5. 노인가구 유형별 노동시장 상태 변화

•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주에 대한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 노인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20% 내외에서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부부가구 가구주의 취업자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기준 39.8%로 나타남.[5)]
-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즉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인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농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락추세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주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022
노인1인	22.5	16.3	14.8	16.5	18.4	22.6	20.4	21.2	21.5
노인부부	29.8	28.9	31.1	26.6	29.6	30.6	33.7	37.3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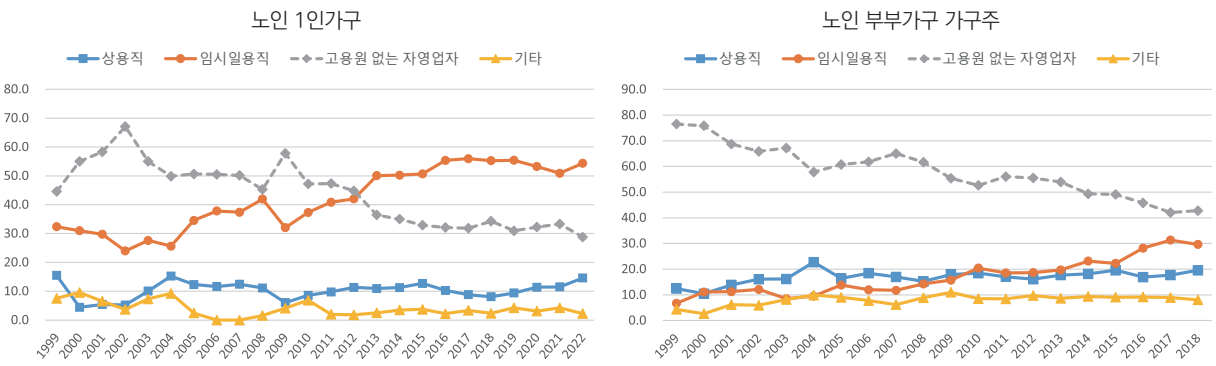
주 : 각 연도 98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5)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1999년에 비해 2022년 각각 4.5배, 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6] 노인가구 유형별 종사상 지위 비중 추이

(단위 : %)



주 : 각 연도 98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 주요 산업별[6]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농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2009년 대비 2022년 기준 각각 25.4%p, 14.2%p 감소한 11.1%, 5.1%로 나타난 반면, 노인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동기간 17.4%p 증가한 29.1%로 나타남.
  -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2009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2년 29.5%p 하락한 14.1%로 나타난 반면, 건설업과 육상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노인가구 유형별 주요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단위 : %)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2
노인 1인	농업[2]	36.5	26.5	22.0	16.9	15.8	16.3	11.1
	도소매업	19.3	19.6	13.6	11.4	10.5	8.7	5.1
	음식 및 주점업[2]	1.2	1.1	4.9	4.5	6.0	6.1	10.0
	공공행정	8.2	4.7	8.3	8.8	7.0	8.2	15.3
	사회복지 서비스업	3.4	10.4	9.1	10.1	13.2	15.3	13.8
	기타 개인 서비스업[2]	4.8	8.8	4.3	6.5	5.5	6.2	7.5
노인 부부	농업[2]	43.6	37.0	31.3	28.4	21.2	20.2	14.1
	건설업	4.0	7.7	7.4	5.8	8.2	8.7	8.6
	도소매업	9.8	9.3	13.4	10.1	9.7	10.5	9.3
	육상운송업[2]	3.2	4.1	5.6	7.9	6.9	9.1	9.7
	부동산업	13.7	8.7	7.2	8.0	10.6	11.3	18.1
	공공행정	4.8	3.0	3.2	2.6	8.6	5.8	4.7
	사회복지 서비스업	1.5	2.8	1.9	4.8	4.7	5.3	8.4

주 : 1) 각 연도 98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01), 음식 및 주점업(56), 육상운송업(49),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은 중분류이고 나머지는 대분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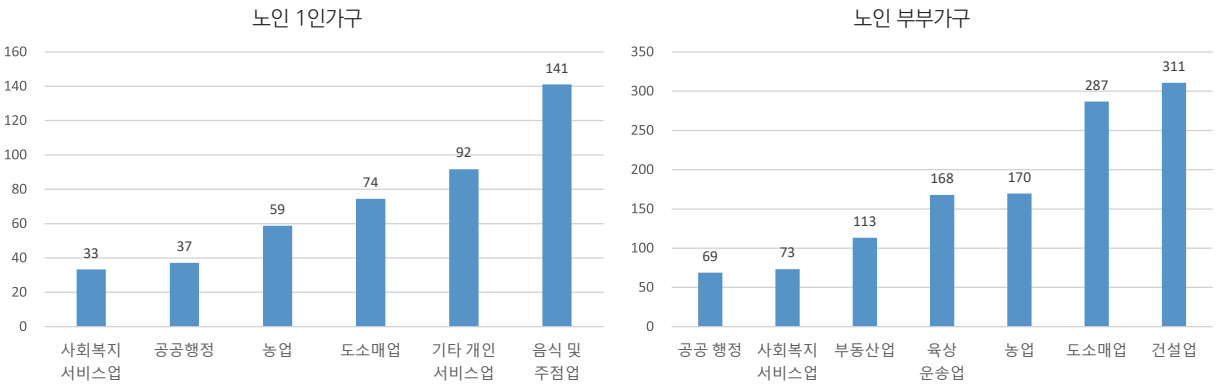
6)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2022년 기준으로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 주요 산업별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 음식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노인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14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주요 업종은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인 1인가구의 소득하위 40%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92.9%, 96,4%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정부 노인일자리의 빈곤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7)]
-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22년 기준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월평균임금이 각각 311만 원, 28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당산업에 가구주가 종사하는 경우 소득하위 40% 비중은 39.2%, 33.3%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반면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업의 월평균임금도 113만 원으로 다른 주요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8)]

[그림 7] 2022년 노인가구 주요 산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주 : 1) 각 연도 98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01), 음식 및 주점업(56), 육상운송업(49),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은 중분류이고 나머지는 대분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25차(1999~2022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6. 요약 및 시사점

•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22년 32.3%까지 상승하였으며, 그중에서 노인 1인가구는 10.1%, 노인 부부가구는 11.0%로 조사됨.

- 노인 1인가구의 성별은 대체로 여성 중심이었으나 최근 남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별거'로 인한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타남.
-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 가구주의 학력은 2002년 초졸 이하 저학력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고졸 이상 고학력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노인가구 유형별로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노인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130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노인가구에 비해서는 83만 원,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서는 111만

7) 2022년 기준으로 음식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노인 1인가구의 소득하위 40% 비중은 53.6%, 농업은 72.9%, 기타개인서비스업 80.3%로 나타남.

8)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주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하위 40% 비중은 76.2%로 조사됨.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1인가구의 소득하위 40%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2021년 83.6%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소득하위 40%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은 낮고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은 것이 특징임.
- 특히 노인 1인가구 총소득의 절반가량은 이전소득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이 주된 소득원인 것으로 조사됨.

• 노인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20% 내외에서 횡보 중인데 취업자 규모로 보면 1999년 대비 2022년 4.5배 증가했고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주 취업자 규모는 동기간 4.8배 증가함.

-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취업자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임.
- 노인 1인가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집중된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지속 중인데 해당 업종 월평균임금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빈곤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노령 및 유족연금 등, 기초연금)과 사적이전소득(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공공근로가 주요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노인가구 중 소득하위 40%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혜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따라서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9)]

9)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투입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9.4%로 OECD 평균 18.4%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